

잠사회사 여공의 피부질환

- ……………이 글은 대한예방의학회지 제9권 1호……………○
 ○……………(1976年 10月)에 게재된 경북의대 김두……………○
 ○……………희 교수의 연구논문 가운데 주요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編輯者 註—……………○

저자는 1975년 11월 대구시내 모 잠사공장 여공 177명에 대한 집단건강 진단을 실시한 바 이들 여성 근로자가운데 53%가 각종 피부질환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다.

이들 피부질환은 손톱이 마모(磨耗)되는 것과, 피부가 각화되는것 그리고 피부에 균열이 생기는등 피부변화가 47.5%로 가장 많았으며 알레르기 반응이 14.7% 그리고 무좀등이 그 다음의 순이었다.

피부변화의 경우 그 진행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개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근속연수와는 무관한 것 같았으나 대체로 2년이상 근속자에게 빈발하는 경향을 보였다.

손톱의 마모는 근속연수 2년이상인 근로자에게 매우 유의있는 차이를 보일 만큼 발생빈도가 높았다.

한편 알레르기 반응은 입사후 수개월 이내에 발생되며 다시 접촉여하에 따라 그 정도를 달리하고 있었다.

이들 피부질환의 호발(好發) 부위를 보면 역시 접촉이 잦은 손가락이 전체의 2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손바닥으로 12%, 등이었는데 그 외에도 팔, 다리 얼굴, 목, 몸통 등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심한경우 이 피부질환을 습진모양으로 변하기도 했다.

알레르기의 경우는 손에 오는 경우가 전체의 50%나 됐고 몸통부분에도 11%나 되었다.

이 알레르기는 발진이 생긴경우가 전체의 61.5%였고 다음이 가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로서 19.2%였다. 그의 물질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다.

이 잠사공장의 경우 옥사부서와 제조 부서의 두 작업부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 직업성 피부질환의 발생에는 두 부서가 별차이 없이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었다.

저자는 이 연구에서 손톱마모와 피부 변화를 물리적자극에 의한 것으로 보고 알레르기 반응은 고치 삶은 물이나 잠사에서 우러나는 특정 단백질질에 의하는 것으로 고찰하고 있었다.

더구나 이같은 근로자들의 피부질환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는 단순한 “고치독”으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으나 여름철에는 적잖은 고통까지 수반 한다는것을 지적하고 있다.

끝으로 저자는 이러한 잠사공장 피부질환이 설사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하더라도 그 높은 유병율로 보아 결코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었다.

따라서 개인보호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고 되도록 고치불이 몸에 닿지 않도록 하는 예방대책내지는 작업조건 개선책을 건의하고 있었다.●